

개명의 동기와 개명 후 자기지각척도에 관한 연구

신상춘^{1*},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Study on the motivation for renaming and the level of self-perception scale attained after renaming

Sang-Chun Shin^{1*}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개명의 동기와 개명 후 자기지각척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6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개명하기 전보다 후에 성공척도, 정서척도, 성격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이 개명하고자 원했던 자는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자기지각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명동기가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로 가장 많고, 개명 후에 가장 큰 변화로 ‘자신감’, ‘만족감’ 등이 자기지각척도를 높였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tivation for renaming and the self-perception scale attained after renaming.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1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from April 1 to May 31, 2013. The analyzing methods includ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etc. All of the empirical analysis was verified at the 5% level of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renamed individuals scored higher on the success scale, the emotional scale and the personality scale after renaming. The study found that the individuals, who adopted a new name as per their own desire,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the self perception scale. The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material for persons who desire a new name, based on its result that the greatest motivation for renaming is the “desire to have a good name” and that the biggest changes accompanying the new name are the sel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which have helped the renamed individuals score higher on the self-perception scale after renaming.

Key Words : Changing one's name, Name, Naming, Name letter effect, Renam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활동이 늘면서 자기개발 및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이름이 상표처럼 자신을 널리

알리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시 된다.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이미지 개선으로 개명 이후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 자기암시효과 때문에 개명을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출생아 484,300명을 포함하여 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0,965,180명이다[1]. 또한 사법통

*Corresponding Author : Sang-Chun Shin(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4156-0574 email: ssc58@hanmail.net

Received August 8, 2013

Revised (1st August 28, 2013, 2nd September 1, 2013, 3rd September 5, 2013)

Accepted September 6, 2013

계에 따르면 개명신청자가 1999년 30,656건에서, 2012년 158,960건으로 개명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2]. 2012년 출생아 수와 개명신청자를 합하여 643,260명이 이름을 작명했거나 개명하였다.

개명신청이 급증한 계기는 2005년 11월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3]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개명을 허가하였다. 이는 개명으로 발생하는 부분적인 혼란보다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개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4-12].

이름에 대한 연구는 성정에 의하면 개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는 작명과 기존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이 파악되었다[4]. 실제로 고려시대 국왕 33명 중 16명과 최충현이 개명하고, 정몽주는 재 개명하였으며, 최성지는 네 번이나 개명하였다[5]. 따라서 작명과 개명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이름에서도 인정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일반인에게 개명이 허용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이름 매력도 연구에서는 이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름효과가 나타났으며, 매력도가 높은 이름을 가진 또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실증연구를 하였다[6]. [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기 없는 이름이 편모나 고아 같은 비전통적 가정의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8]의 청소년연구에서도 자존감은 낮아지고, 흡연은 늘고, 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름이 영향을 미쳐 암묵적 자기중심주의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름효과와 연상현상은 이름 또는 이름의 특정 부분이 연상을 불러 일으켜서 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신의 이름과 닮은 인생을 살거나 배우자를 찾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예를 들면, 토비는 도요다 자동차를 사고 토론토로 이사 가고 토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9]. 이러한 이름효과와 연상현상이 사람을 이름대로 살게 만들며 이름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름은 개인의 행복에 악영향[10]을 줄 만큼 이름이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개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조상이 지어준 이름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5], 2001년부터 10년 동안 국민 44명 당 1명이 개명하였다[2]. 기업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개명하였고, 일반인들은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개명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이름매력도, 이름효과, 작명동기, 범죄, 주거, 직업, 개명 등에 대한 연구는 하였으나[4-10], 성격과 성공, 정서에 대한 개명전후 개명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개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름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라는 충효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명동기, 성격과 정서, 성공요인이 자가지각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이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작명과 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름매력도, 이름과 범죄, 불운한 이름의 영향, 이름과 죽음연구, 이름과 적응 등의 작명연구[6-10,12]와 개명권, 작명과 개명, 왕과 개명, 개명동기에 대한 개명연구[4,5,11]가 있다. 본 장에서는 개명 관련연구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이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개명에 대한 최초연구는 성경내용을 분석하여 하나님이 기존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해서 이름의 변화에 의하여 한 개인의 성격, 운명(예정된 삶), 인격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4]. 즉,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의 개명에 대한 소고에서는 개명권의 법률문제, 개명문제, 이름과 인격권, 개명신청사유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개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5]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개명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왕과 특권층에 대한 개명연구를 하였으나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개명에 대한 선행연구[4,5,11]는 모두 문헌연구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고 특히 개명효과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성과 이름의 이니셜을 가지고 이름에 대한 3가지 연구를 하였다. 첫째, 성이나 이름이 삼진(K)을 의미하는 K로 시작되는 메이저 리그 야구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K(삼진)를 더 당하였다. 둘째, 좋지 않은 성적을 상징하는 C나 D 같은 이니셜을 가진 MBA과정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을 일원분산분석으로 입증하였다. 셋째, C나 D 이니셜의 변호사들은 A와 B 이니셜의 변호사들보다 등급이 낮은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름효과를 입증하였다[9]. 그

러나 성이나 이름의 이니셜만 연구한 것이 한계점이다.

청소년을 연구한 [1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름의 의미, 작명자, 작명동기, 개명 이유, 만족도, 성명학에 대한 태도를 설문하여 이름연구를 심도 있게 하였다. [7]은 인기 없는 이름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6]의 연구 역시 청소년들이 친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대의 이름매력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름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연구한 것이지 개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름에 대한 선행연구[6,7,9,12]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명동기와 개명후의 개명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지각척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3.1.1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이름을 개명한 사람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13년 4월 1일 부터 2013년 5월 31일 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명한 사람에게 개명동기를 파악하고, 개명 전과 후에 자기지각 인식도와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전후비교조사 설계이다.

3.1.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문항별로 자기기입식으로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기지각척도의 점수부여 방식은 Likert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3.1.3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자기지각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 개명 전과 후 자기지각척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과 개명이유에 따른 자기지각척도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

정하였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려고 카이스케어 검정(χ^2)을 하였으며, 자기지각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도구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를 개명한 사람 161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개명특성 5문항, 개명동기 특성 10문항, 자기지각 특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3.2.1 대상자 개명특성 항목

개명특성 변수는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기존이름 작명인, 개명 이름 작명인, 개명을 원하는 사람, 개명하고 변화된 점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개명 동기는 단답형으로 설문하였다.

3.2.2 개명동기 특성 항목

권석만[13]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개명동기(중복응답)를 설문하였다. 설문문항의 수정내용은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개명자로 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중요도 .71, 공정평가도 .87, 부정평가도 .86이고 타당도는 8개 평가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예쁜 이름을 갖고 싶어서,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겨서,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등 10문항으로 구성했다.

3.2.3 자기지각척도 특성 항목

김영재[14]의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 400개 중에서 김정희[15]가 설계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름에 대한 자기지각척도가 높다.

자기지각척도 하위요인을 정서 요인, 성격 요인 그리고 성공 요인으로 나누었다. 정서요인은 ‘세련된’, ‘사랑스러운’이고, ‘적극적인’, ‘융통성 있는’을 성격요인으로 나누었다. ‘행복할 것 같은’, ‘건강할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부자 될 것 같은’, ‘대박날 것 같은’, ‘뚝뚝한’을

성공요인으로 구성하여 10문항으로 하였다.

3.2.4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16].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연구결과는 Table 1와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self-perception scal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Self-perception scale	Success	.890
	Emotion	.683
	Character	.674
Self-perception scale	10	.878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개명 특성

기존 이름을 작명한 사람은 '부모님'이 75.2%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19.3%, '작명소' 4.3% 순이었으며, 개명 이름을 작명한 사람은 '작명소'가 73.3%로 가장 많았고, '본인' 13.7%, '부모님' 8.7%, '기타' 4.3% 순으로 나타났다. 개명을 원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2.0%가 '본인'이었으며, '부모님'은 16.1%, '작명소'는 8.7%, '기타'는 3.1% 순이었다.

개명이유는 '이름이 나빠서'가 43.5%로 가장 많았고, '어릴 때부터 개명희망' 26.1%, '성인이 된 후 개명희망' 12.4% 순이었다. 개명 후 변화가 된 점으로는 '자신감' 41.0%, '만족감' 28.6%, '성공적인 삶' 9.9% 순이었다. '아직 모름'은 17.4%이고, '기타'는 3.1%이었다.

4.2 개명동기

개명 동기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가 14.3%로 개명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12.8%,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와 '성공하고 싶어서'가 각각 12.1%, '행복해지고 싶어서' 10.8%, '예쁜 이름을 갖고 싶어서' 10.5%, '부자가 되고 싶어서' 8.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named the motivation(Multiple responses)

Division	The frequency(N)	Percent (%)
I wanted a pretty name	76	10.5
I wanted a good name	104	14.3
I want to be happy	78	10.8
Just because a bad name	88	12.1
I wanted to succeed	88	12.1
Impossible, to work out	54	7.4
I want to be rich	61	8.4
I want to become healthy	49	6.8
Came up with the name of the alias	34	4.7
I want to change the fate	93	12.8
All	725	100.0

4.3 자기지각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지각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자기지각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R^2=0.089$ 로 전체 변동의 8.9%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F=7.714$, $p<.01$), 개명을 원한 사람($\beta=.223$, $p<.01$), 개명이름 작명자($\beta=.184$, $p<.05$) 순으로 자기지각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명을 본인이 원하고, 개명이름을 작명소에서 작명한 경우 자기지각척도가 더 높다.

[Table 3] Factors affecting self-perception scale

	The dependent variable: Self-perception scale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3.593	.133		27.011***	.000	
Who want to rename	.356	.121	.223	2.936**	.004	1.004
Naming the current name	.298	.123	.184	2.423*	.017	1.004
$R^2 = .089$, adj $R^2 = .077$, $F = 7.714^{**}$						

* $p<.05$, ** $p<.01$, *** $p<.001$

4.3.1 성공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공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공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R^2=0.075$ 로 전체 변동의 7.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F=6.439$, $p<.01$), 개명이름 작명자($\beta=.196$, $p<.05$), 개명을 원한 사람(β

=.181, p<.05) 순으로 성공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명할 이름을 작명소에서 선택한 경우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에는 성공척도를 높게 지각한다.

[Table 4] Measure of the success factors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 Success					
	B	The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3.603	.148		24.302***	.000	
Renaming naming name	.350	.137	.196	2.556*	.012	1.004
Who want to rename	.318	.135	.181	2.356*	.020	1.004
$R^2 = .075, \text{adj } R^2 = .064, F = 6.439^{**}$						

* p<.05, *** p<.001

4.3.2 정서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서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서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R^2=0.052$ 로 전체 변동의 5.2%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F=8.683, p<.01$), 자신이 개명을 원하는 사람($\beta=.228, p<.01$)만 정서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명을 원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에 정서척도를 높게 지각한다.

[Table 5] Measure of emotional factors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 Emotion					
	B	The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3.833	.115		33.317***	.000	
Who want to rename	.399	.136	.228	2.947**	.004	1.000
$R^2 = .052, \text{adj } R^2 = .046, F = 8.683^{**}$						

** p<.01, *** p<.001

4.3.3 성격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성격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R^2=0.117$ 로 전체 변동의 11.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F=10.512, p<.001$), 개명 후 변화가 자신감($\beta=.235, p<.01$), 개명을 원하는 사람($\beta=.205, p<.01$) 순으로 성격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명 후의 변화가 자신감인 경우, 개명을 원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에 성격척도를 높게 지각한다.

[Table 6] Scale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

	The dependent variable : Character					
	B	The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3.529	.116		30.322***	.000	
Change-Confidence	.379	.124	.235	3.070**	.003	1.046
Who want to rename	.364	.135	.205	2.687**	.008	1.046
$R^2 = .117, \text{adj } R^2 = .106, F = 10.512^{***}$						

** p<.01, *** p<.001

4.4 개명 전과 후 자기지각척도의 변화

개명 전과 후에 자기지각척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와 같다. 개명 전과 후 자기지각척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성공, 정서, 성격 모두 개명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자기지각척도는 개명 전 ($M=2.57$)에서 개명 후($M=4.07$)로 개명 후 자기지각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t=-20.477, p<.001$). 세부적으로 성공은 개명 전($M=2.69$)에서 개명 후($M=4.09$)로 성공척도가 높아졌으며($t=-18.111, p<.001$), 정서는 개명 전 ($M=2.22$)에서 개명 후($M=4.12$)로 정서척도가 높아졌고($t=-19.494, p<.001$), 성격은 개명 전($M=2.53$)에서 개명 후($M=3.95$)로 개명 후 성격척도가 높아졌다($t=-14.570, p<.001$).

[Table 7] Renam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in self-perception scale

Division		Renamed go		Afterrenaming		Before-after		t	p
		M	SD	M	SD	M	SD		
		Self-perception scale	Success	2.69	.78	4.09	.79		
	Emotion	2.22	.91	4.12	.79	-1.90	1.24	-19.494***	.000
	Character	2.53	.86	3.95	.80	-1.41	1.23	-14.570***	.000
Self-perception scale		2.57	.69	4.07	.72	-1.50	.93	-20.477***	.000

*** p<.001

5. 논의

본 연구는 개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명동기, 이름

에 대한 자가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가지각척도를 높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명을 원한 사람이 본인인 경우가 본인이 아닌 경우보다 자가지각척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개명한 후에 자가지각척도 하위 요인인 성공요인, 정서요인, 성격요인이 모두 높게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 동기는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가 가장 높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순이었다. 이는 이름에 담긴 뜻이 좋아서(50.7%)였고, 이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성명학적 의식에 ‘어느 정도 동의 한다’(51.5%)로 나타난 결과[12]와 일치한다. 이 의미는 이름이 개인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명해서 좋은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뜻이다.

둘째, 개명을 원한 사람, 개명할 이름을 작명한 사람 순으로 자가지각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름에 대한 자기만족도는 개인의 적응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6] 실제로 이름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닮은 인생을 살게 하거나 배우자를 찾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연구결과[9]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개명을 원한 사람이 직접 작명소에서 개명했을 경우에 이름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명한 후의 성공요인에는 개명할 이름을 작명한 사람, 개명을 원한 사람 순이었다. 정서요인에는 개명을 원한 사람만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성격요인에는 자신감, 개명을 원한 사람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6,7,9]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6,7,9]는 이름에 대한 회귀분석이고 개명에 대한 회귀분석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에 대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통계의 설명력은 낮지만, 추정된 회귀분석은 모두 유의미하다. 또한, 개명과 관련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의미는 높으나, 이 또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자가지각척도에 대한 개명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세부적으로 자가지각척도에서 성공요인은 개명 전(M=2.69)에서 개명 후(M=4.09)로 성공척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정서요인이 개명 전(M=2.22)에서 개명 후(M=4.12)로 정서척도가 높아졌으며, 성격요인은 개명 전(M=2.53)에서 개명 후(M=3.95)로 개명 후 성격척도가 높아졌다.

자신의 이름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인 것[6]과 이름이나 이름의 특정부분이 연상현상을 불러 일으켜서 행동에 영향[9]을 주는 연구와 의미

가 일치한다. 이 의미는 이름 또는 이름의 특정부분이 연상 작용을 하여 이름에 대한 자가지각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명동기, 자가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명 전후 자가지각에 대한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전후 비교조사 설계이다. 개명한 사람 161명을 연구대상으로 개명의 동기와 개명 후 자가지각척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 동기는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가 가장 높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순이었다. 이 의미는 이름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명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갖고 싶다는 뜻이다.

둘째, 자가지각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개명을 원한 사람, 개명할 이름 작명한 사람, 자신감 순이었다. 특히 개명을 원한 사람이 본인인 경우가 본인인 경우 보다 자가지각척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자신이 원할 때 개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개명 전과 후 자가지각척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성공, 정서, 성격 모두 개명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명을 하면 성공요인과 정서요인 그리고 성격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자가지각척도가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명 후에 자가지각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므로, 개명을 하면 이름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자가지각척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본인이 원해서 개명을 한 경우에 성공요인, 정서요인, 성격요인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차원에서 이름이 자존감이나 스트레스에 미치는 개명전후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ureau of Statistics Population Trends and Society, 2013.

[2] The Supreme Court, Monthly Statistics court (Non-Contentious Lyrics: 2001-2012), 2012.12.

[3] Supreme Court precedents press release, "If bad intentions renamed principle approval(2005스26 Renamed decision)" 2005.11.24.

[4] S. B. Lee, "In the Bible study on naming and renaming". 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ster's Thesis, 1997.

[5] J. H. Park. Name-Changes of the People in the Goryeo Dynasty. *Dong Bang Hak Chi*, Vol. 141. pp. 121-177. 2008. 3.

[6] H. J. Kim, "Adolescent' Early Friendship Formation and Name Attractivenes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7] Kalist, D. E., Lee, D. Y., First Names and Crime: Does Unpopularity Spell Trouble? *Social Science Quarterly* Mar 2009, Vol. 90 Issue 1, pp. 39-49. 2009.

[8] Gebauerl, J. E., Leary, M. R., Neberich, W., Unfortunate First Names: Effects of Name-Based Relational Devaluation and Interpersonal Neglec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pp. 590-596. 2012.
DOI: <http://dx.doi.org/10.1177/1948550611431644>

[9] Nelson, L. D., Simmons, J. P., Moniker maladies: When names sabotage success. *Psychological Science*, 18, pp. 1106 - 1112.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467-9280.2007.02032.x>

[10] Abel, E. L., Kruger, M. L., :Athletes, Doctors, and Lawyers with First Names Beginning with "D" Die Sooner, *Death Studies*, 34:1, pp. 71-81. 2009.
DOI: <http://dx.doi.org/10.1080/07481180903411885>

[11] S. K. Cho, A Note on renaming.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Legal Culture Mastering of Law* 4(2000.2). pp. 3-38.

[12] M. H. Yang.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name of Koeran and Korean's language attitudes toward the name.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Korean Linguistics* 55, pp. 239-266. 2012. 5.

[13] S. M. Kwon, Some characteristics of depressed people in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self-cogni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5, No. 1, pp.17-31. 1996.

[14] Y. C. Kim, Simsangga of 400 personality trait adjectives and the Hawthorne. Keimyung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2, pp. 17-32. 1984.

[15] J. H. Kim, "Perceived stress,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sets in a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1987.

[16] S. I. Chae.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p.25. Seoul: Beopmunsa, 1980.

신 상 춘(Sang-Chun Shin)

[정회원]



- 1992년 3월 ~ 1995년 2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3년 3월 ~ 2013년 9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교육학, 성명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성결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융합, 복지상담,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정보보안